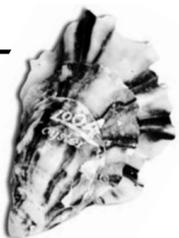


'신안 1004굴'



세계적 셰프 입맛 사로잡았다

패각에 1004로고 각인...원산지표시·고급 브랜드화 호텔 20여곳 납품...아세안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신안군이 민선 7기부터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목표로 추진한 1004굴 양식산업이 세계적인 셰프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민선 8기에 본격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18일 신안군에 따르면 1004굴 양식산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범 양식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양식기술을 개발했다.

세척, 선별, 포장에 이르는 자동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제작해 노동력 감소와 함께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1004로고를 패각 표면에 레이저로 각인해 원산지 증명과 함께 고급화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민간 주도의 양식산업 정착과 안정적인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양식학교를 운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신안군의 다양한 노력은 1004굴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1004굴은 에빛, 라미피에, 보르고한남과 같은 파인다이닝(고급 식당)은 물론, JW메리어트 제주, 페어몬트 엠베서더 등 호텔 20여곳 이상에 납품되고 있다.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셰프는 "1004굴은 품미가 매우 뛰어나다. 부드럽고 크리미한 식감이 다양한 요리에 완벽히 어울린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국내외 파인다이닝에서 핵심 재료로 자리 잡고 있는 1004굴은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다. 현재 홍콩에 1차 수출을 마쳤으며,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주요 시장과도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수출 협의가 구체화되면 1004굴은 아세안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



신안 1004굴이 부드럽고 크리미한 식감으로 세계적인 셰프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해외 수출의 물꼬를 트고 있다. 사진은 '1004로고'가 각인된 1004굴과 이를 활용한 국내 유명 호텔 및 파인다이닝의 굴 요리. <신안군 제공>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나갔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경쟁력 있는 일자리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1004굴 양식산업이 오랜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딛고, 이제는 신안군의 수산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아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1004굴의 뛰어난 품질과 가치를 국내뿐만 아니라 아세안을 넘어 유럽 등 글로벌 미식 시장에 널리 알리고 ASC 국제인증과 패류 생산해역 지정 등 수출기반을 마련해 세계적인 명품 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양훈기자

완도군, 내년도 예산 6천214억 확정... "민생·복지 집중"

올해비 3.8% ↑ ...사회복지 분야 23%·농림해양 21%
신우철 군수 "내년 '완도 방문의 해' 선포...경제 활성화"

완도군이 2025년도 본예산 6천214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군민 복지 증진과 민생 경제에 집중한 균형 운영을 추진한다.

18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예산 편성은 올해 본예산 5천985억원보다 229억원(3.8%) 증가한 규모로, 정부 국제 증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상향 조정 등 이번영원 결과다.

일반회계는 5천9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억원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103억원(63.1%) 증가한 267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재원은 ▲지방세 274억원 ▲세외수입 154억원 ▲교부세 3천42억원 ▲국·도비 보조금 2천346억원 등이다.

완도군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군민 복지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복지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특히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해·재난 대비, 상수도 개선 등 신규 사업에 투자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1천473억원(23%)을 배정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농림해양수산 1천328억원(21%), 환경 806억원(13%), 공공행정 415억원(6%) 순으로 집행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135억원) ▲청년 공공 임대주택 건립(65억원) ▲인근 부표 보급

기(63억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50억원) ▲해안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43억원) ▲도서관 여객선 운임 지원(42억원)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료 지원(41억원) 등이 포함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2025년은 완도 방문의 해 선포식과 국제 슬로시티 총회, 섬의 날 행사 등 굵직한 행사가 예정된 중요한 한 해"라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기자

나주시,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서 '농식품부장관상' 지역 최초 조사료 생산단지 '공산중포영농조합법인' 선정

나주시가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이 되는 국내산 조사료 품질향상 성과를 인정받았다.

18일 나주시에서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4년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인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사료작물 품질경연은 국내산 조사료 경영체 생산 의욕 고취와 우수 품질의 조사료 홍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전국 조사료 경영체에서 생산한 이탈리아라이그라스(IRG), 옥수수 등 국내산 사료작물 품질을 수분함량(40%)에 따른 품질평가 항목(의관검사, 화학적 검사 등)에 따라 평가한다.

올해는 지자체 추천으로 경영체 49곳에서 생산한 동계 사료작물 33점과 하계 사료작물 16점이 출품됐다.

장관상을 수상한 나주시 관내 경영체는 '공산중포영농조합법인'으로 이탈리아라이그라스(IRG) 품목이 선정됐다.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 선정에 따른 지역 최초 조사료 전문단지로 지난



20여년간 조사료 품질향상에 노력해온 결실을 이뤘다. 나주시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 용 활성화에 따른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동·하계에 걸쳐 약 4천ha 규모 조사료 재배에 대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품질향상 생산비, 기계·장비·종자 지원 등에 예산 5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주=정훈환기자

영광군,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 '착착'

최종보고회서 체계적 추진 방향 설정...이달 중 인증 신청

영광군은 18일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사진)'를 개최하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4개년 계획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실·과·소장, 아동·청소년 복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실천 방안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영광군은 아동친화적 환경 진단, 유사 사례 분석,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각 부서간 협업 강화,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밑거름을 마련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아동친화도

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했으며 이달 중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동 권리 증진과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섭 영광부군수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우수 특산물 영암산 마늘 계약재배 '순항'

3개 농가 참여 4.9ha규모 재배 내년 4월 수확...농가·기업 상생

내년 4월이면 도시 대형마트에서 맛볼 수 있는 영암산 계약재배 마늘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18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마늘 계약재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종면 갈곡리 마늘밭을 찾아 양호한 생육 상태를 확인한 결과 오는 2025년 4월에 재배가 가능해 업체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선 8기 영암군의 농정혁신 정책의 하나인 이 사업은 영암 기업과 농가의 상생 모델 구축을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영암군은 지역농산물 품질 안정, 예측 가능한 농가 수익 확보, 고품질 기업 원료 확보 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올해 7월 영암군과 농가, 기업이 만난 간담회에서 영암군은 농가의 안정 수익 보장, 지역 농산물 경

쟁력 강화 등을 위해 계약재배 방식을 제안했다. 영암읍특화농공단지 채소류도·매업체 '새아침농산'은 농특산물 계약재배 의사를 밝혔고, 이후 논의를 거쳐 3개 농가가 참여하는 4.9ha 규모의 마늘 계약재배를 결정했다.

계약재배 마늘은 10월 하순에 파종됐고, 영암군은 이번 생육상황 점검 이외에도 계약재배 농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영암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계약재배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양파·생강 등 다른 농산물로 규모와 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준두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우수한 영암의 농·특산물로 농가와 기업이 상생하는 모델 창출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기자

이형완 목포시의원 "요트마리나 철저 관리" 요구

시정질문서 행정재산 사유화 인식 지적...관광 정책·빈집 문제도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더불어민주당·목원·동명·만호·유달·사진)이 지난 17일 열린 제39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시 요트마리나 관리 문제, 관광정책 개발 방안, 원도심 빈집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형완 의원은 삼학도 내해에 70억원(국비 35억원·지방비 35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요트마리나항의 관리 소홀

문제를 제기하며, 어항과 마리나의 공존 문제를 비롯해 시 행정재산이 사유 재산처럼 인식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신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MC에너지와 기존 수탁자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상황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목포만의 차별화된 관광

정책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광빅데이터 활용과 체류형 관광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목포의 세계화를 위해 음식 매뉴얼에 영어로 재료를 표기하는 등 세부적인 실행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목포시의 장기적 문제인 원도심 빈집 활용과 관련, 이전 시정질문에서 빈집 철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방치된 빈집 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철거 후 해당 부지를 주차장이

나 공원으로 조성하는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형완 의원의 질문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과, 공원녹지와 뿐만 아니라 도시디자인과와 협업을 통해 해당 부지에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형완 의원은 "정치는 열정과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널빴자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라며 "목포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널빴자를 강하게 서서히 뚫는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